

(주소) 16614 /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(전화) 031-231-0880 (팩스) 031-236-0283

배 포 일	2023. 8. 1.	쪽수	사진	기관 도메인주소	자료 문의
보 도 일	배포 즉시				
경기도-경기문화재단, 경기도 예술인과 소통의 장 펼쳐		2쪽	4장	www.ggcf.kr/	부서 : 예술인지원팀 담당 : 박미규 전화 : 031-231-0893

경기도-경기문화재단, 경기도 예술인과 소통의 장 펼쳐

- ▶ 경기도 예술인·경기도청·경기문화재단 간 정담회 진행
- ▶ 경기도-경기문화재단, 2023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 성료

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(대표이사 유인택)이 <2023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>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소통에 나섰다.

<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>는 경기문화재단이 2021년부터 시행된 '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'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. 2022년부터 시작된 <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>는 그간 모집 인원의 9배가 넘는 예술인이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, 현장에서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.

이번 <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>는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과 경기문화재단 실무자, 도내 예술인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. 지난 7월 6일부터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, 청년협업마을·장애예술공간·문화플랫폼 등 예술 현장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소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.

특히 이번 정담회는 지난 정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/청년예술·장애예술·공연예술·시각문학 등 총 4개의 활동 분야별로 예술인을 모아 분야별 현실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에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술인이 나이를 막론하고 각 예술 분야로 하나되어 재단과 직접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.

본 정담회에서는 2022년 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시된 총 3가지 의제(예술 분야 마케팅 및 홍보지원 / 예술인지원사업 사각지대 지원방안 / 전방위적인 정보 안내 및 홍보)와 각 장르별 논의사항, 경기도 예술인·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 이에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예술인 지원 사업 다양화, 누리집 활성화, 예술인 커뮤니티 및 지원사업 홍보 등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이어졌다.

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"작년에 이어 <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>가 예술인과 경기문화재단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되어 예술 분야별로 다양한 제안을 들을 수 있었다."며, "앞으로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'열린 소통'을 이어 나가겠다."고 말했다.

■ 사진 자료



